

서문

‘문화’로 세계정치를 말한다는 것이 생소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 약 40년 간의 흐름 때문으로 보입니다. 1960년대부터는 미국식의 이른바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이 한반도에 도입되어 하나의 지적 계몽이자 정론(orthodoxy)으로서 ‘국제정치’와 세계를 보고 말하는 방법을 지배해왔습니다. 모든 국가들은 이른바 ‘권력’의 주체이며 세계정치란 각각의 국가가 다른 나라들의 권력 사이에서 살아남고 또 다른 나라들을 겁박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이라고 보아왔습니다. 이러한 시각은 제2차 세계대전 직전에 등장하여 전후 냉전 시기를 통하여 미국을 중심으로 하나의 학문으로 성립되었고 이는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에 도입되어 우리의 ‘현실’을 파악하는 틀이 된 것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군사력 외에도 경제를 중시하는 시각이 지난 30년 간 중요한 흐름이 되어왔습니다. 그러나 경제도 세계정치에서 다른 나라를 겁박하고 강제하는 요인으로 간주되어 온 이상 현실주의의 흐름을 벗어난 것일 수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주의’적 틀을 벗어나 좀 더 넓고 다양한 시각으로 세계를 보려는 시도는 현실주의의 요람이었던 냉전이 종료된 상황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를 무력과 경제력 등의 공식적 강제력만이 작동하는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요인들 특히 인간의 삶의 여러 자연스런 조건들이 작동하는 요인들을 통해서 보려는 시도는 자연스런 것이며 이러한 시도를 억압했던 조건이 종료됨에 따라서 부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 『세계정치』가 기획 주제로 ‘문화’를 선택한 것은 바로 이러한 연유입니다.

‘문화’란 그 뜻을 명쾌하게 말하기에는 너무나 큰 말이며 과연 이 말이 이른바 개념(concept)이라 부를 수 있는가도 회의적입니다. 단적으로 문화란 인간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를 포괄적으로 부르는 말이며 세계정치와 문화를 말한다는 것은 우리의 포괄적 삶의 양태들과 세계 여러 나라들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말이며 이는 천 날, 만 날 밤을 지새워도 끝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알팍한 한 권의 책으로는 문화의 다양한 측면들을 도저히 다 다룰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즈음 중요한 주제로 이야기되는 대목들만을 추려서 학계의 권위자들에게 부탁드려 글을 실었습니다. 나아가서 이 글들 또한 문화에 대해서 공통적이고 일관적인 시각에서 쓰이지도 못했습니다. 더구나 일관적인 방법론으로 분석된 글들도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다양한 시각에서 다양한 문제를 포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한 글들을 흥미있는 범례로서 제시했습니다. 이 글들은 특정한 방법론에 근거한 이른바 과학적 국제정치학을 오히려 거부하는 학문적 자유에 근거한 높은 수준의 문화적 이성을 표방하는 우리 학계의 작품들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영광스럽게도 일본 학계의 대표적 학자이신 와세다대학의 히라노 겐이치로 교수님께서 옥고를 보내주셨습니다. 문화의 세계정치에 대한 7편의 글 뒤에는 한국 민족주의에 대한 김종학 군의 자유 주제 논문이 게재되었습니다. 독자들에게서 는 부디 깊은 관심을 갖고 즐거운 독서를 기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필자를 대표하여

최 정 운

■ 차례

■ 서문 5

| 기획 주제 |

문화와 국제정치

1. 국제관계를 문화로 본다: 동아시아의 사례(히라노 겐이치로) 9
2. 문화와 권력(최정운) 45
3. 소프트 파워의 세계정치: 여성의 렌즈(박의경) 69
4. 세계화와 문화: 자본, 소통, 정체성의 긴장과 이완(박길성) 95
5.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문화:
 한국과 일본의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김봉진) 123
6. 민족주의와 문화: 타타르스탄과 체첸 공화국 비교(신범식) 153
7. 한류의 매력과 동아시아 문화네트워크(김상배) 193

| 자유 주제 |

8. 신채호와 민중적 민족주의의 기원(김종학) 235